

# 다시 피는 녹두꽃 그 역사의 희망

■일시 : 2004년 4월 25일(일)

■장소 : 부안 백산 · 정음일대 유적지



## 동학농민혁명의 올곧음은 자랑스런 민족정신입니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우리 선조들이 역사에 아로새긴 반외세·반봉건이라는 빛나는 민족정신을 올곧게 계승하여 민족통일국가 실현의 바탕으로 삼고자 창립되었습니다. 창립 이후 일제 36년과 분단 반세기로 점철된 우리 나라 근현대사의 질곡으로 인해 한 지역단위의 국지적인 농민항쟁으로, 반역의 사건으로 축소·왜곡되어온 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바로 세워 그 참모습을 확인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94년에는 혁명 백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사업을 펼침으로써 농민혁명의 현재적 의미를 대중적으로 크게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후로도 매년 백산봉기 기념대회(4월), 전주입성 기념대회(5월), 역사기행(10월), 역사교실(11월) 등의 지속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켜왔습니다. 이 밖에도 동학농민혁명군 지도자 유해봉환('96) 및 홍상계막식('02), 삼례봉기 기념비 건립('96) 및 역사공원조성('02), 동학농민혁명 대서사시 음악극 '천명' 전국 순회공연('99), 전주동학마라톤대회('03) 등을 펼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국제학술대회('01)를 개최하여 한·중·일 삼국의 역사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민혁명의 세계사적 의미, 특히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펼쳐왔던 사업의 성과에 힘입어 앞으로 동학농민군 명예회복을 비롯한 현창사업, 그리고 다가오는 민족통일의 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갑오선열들의 올곧은 정신을 자랑스런 민족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갑오선열 높은뜻 우리 민족의 희망으로



어김없이 봄은 또 찾아왔습니다. 험난한 역사의 산과 들에도 다시 잎이 돋고 꽃이 피어납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그 해 봄은 학정과 수탈 그리고 분노가 온 나라를 휩쓸던 때였습니다. 봉건왕조의 부패와 외세의 침탈로 나라가 위태롭던 그때 자주와 개혁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보국안민, 척양척왜의 기치를 높이 들고 일어난 민중항쟁이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었습니다.

1894년 1월 고부농민봉기를 도화선으로 무장에서 기포한 농민군은 백산으로 진출하여 이곳에서 군대로서의 대오를 편성하고 격문과 12개 조항의 군율, 4대명의 등을 공포하면서 본격적인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내외에 천명합니다. 이렇듯 백산봉기는 전국수준의 농민혁명 단계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되었으며 본격적으로 혁명의 대장정에 오른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백산봉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조들의 높은 뜻을 계승하고자 해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시민·학생들이 함께 하는 기념행사를 펼쳐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110주년이 되는 올해에도 걷기대회, 전적지답사, 학생 글쓰기·그림대회,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기념대회를 통해 갑오선열들의 올곧은 정신이 우리의 자랑스런 민족정신으로 꽃 피어나기를, 민족통일국가를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희망으로 되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 행사를 함께 준비해 주신 문용주 전라북도교육감님과 백낙천 JTV 전주방송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각계인사, 시민, 학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25.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김 정 기

## 나라사랑의 뜻을 세우는 소중한 기회



봄빛이 무르익은 가운데, <동학농민운동 백산봉기 110주년 기념대회>가 성대히 열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행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김정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정의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백산은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억압받던 민중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보국안민(輔國安民)과 척양척왜(斥洋斥倭)를 부르짖으며 격문을 발표했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앞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당시 동학농민군의 열망과 의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실패로 끝을 맺었지만, 그 의의와 참다운 정신은 민주주의의 실현과 통일운동으로 지금까지 계승·발전돼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앞으로도 영원히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의 열강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력 침략을 했던 19세기말에 비해, 앞으로는 경제 문화 지식정보의 무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 이 대회는 매우 뜻깊은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은 선인들의 열과 교훈을 반추하면서, 공동체 의식과 나라 사랑의 뜻을 세우는 소중한 기회로 삼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귀중한 역사의 체험을 마음에 새기고,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평소 여러분이 연마한 실력을 유감 없이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뜻깊은 역사체험의 산 교육장을 마련해 주신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의 무궁한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 및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25.

전라북도교육감 문 용 주

## 개혁 향한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자리



안녕하십니까?

이 너른 들녘에 다시 찾아온 봄과 함께 오늘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백산봉기가 올해로 110주년이 되었습니다.

한세기 하고도 1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반외세 반봉건'을 외쳤던 갑오년 선열의 혁명정신과 그 숭고한 열을 잊지 않고 기리고자 역사적인 이 자리에 다시모였습니다. 백산봉기는 1894년 갑오년 고부봉기를 주도했던 농민들이 군대의 대오를 갖추 동학혁명군으로 발전해 진군을 시작한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과 외세에 항거하고 개혁을 외친 우리의 자랑스런 조상들의 그 뜨거운 열이 바로 이곳에 아직도 살아 숨쉬고 있다고 생각하니 숙연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조선조 말기 조정의 부패와 학정에 견디다 못해 들고일어난 그날도 지금처럼 1년 농사가 시작되는 바쁜 때였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나라 안팎이 어지러운 오늘, 이 자리가 지난날 우리 선조들의 개혁을 향한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올해도 뜻깊은 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라북도교육청과 저희 JTV전주방송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11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 4. 25.

JTV 전주방송 대표이사 백 낙 천

## 유적지소개



### 백산봉기 터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지방기념물 제31호, 사적 제409호

이곳은 1894년 3월 25일(음) 수만의 농민군이 집결하여 군대로서의 대오를 갖추고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널리 알린 역사적인 장소이다. 해발 47미터의 낮은 산이지만 부안, 김제, 고부, 태인 등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로, 고부들판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전략적 요충지다. 동학농민군은 이곳에서 호남창의대장소(湖南倡義大將所)를 설치하고, 그 이름으로 격문(檄文)을 공포하여 8도(八道) 농민들의 봉기와 호응을 촉구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수많은 농민들이 흰옷에 죽창을 들고 이곳 백산에 모여들어 "얹으면 죽산(竹山)이요 서면 백산(白山)"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 전봉준 고택(古宅) · 단비(壇碑)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조소마을



• 고택 : 지방기념물 제19호, 사적 제29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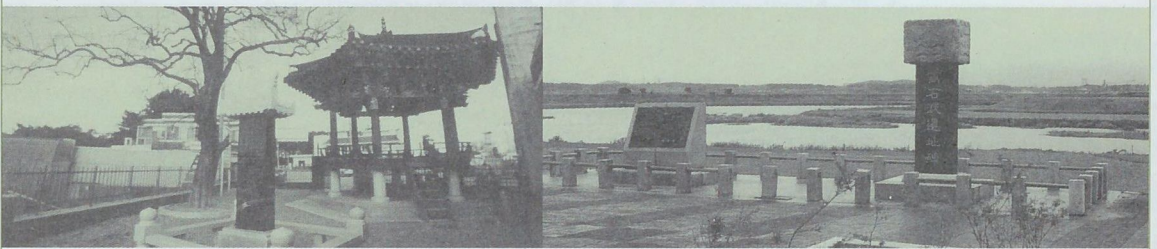
전봉준 장군이 살았던 집. 이 집은 갑오년 당시 행정구역상 고부군 공동면 장내리 조소마을이었다. 이 집은 1894년 고부농민봉기 때 안핵사 이용태에 의해 불태워졌으나 완전히 소실되지 않아 후에 보수한 것이라 한다. 전봉준 장군은 이곳에서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다고 한다.

• 단비 : 전봉준 장군 고택에서 500여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단비에는 <갑오민주창의통수천안전공봉준지단>이라 새겨져 있다. 단비란 유해가 없는 빈 무덤으로,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단비는 천안전씨 문중에서 세웠다고 전해진다.

## 말목장터

정읍시 이평면 두지리

이곳은 부안, 태인, 정읍으로 가는 길이 만나는 삼거리에 있는 장터이다. 1894년 1월 10일(음) 고부봉기 때 고부로 진출하기 전에 이 일대 농민 1천여 명이 모였던 장소로써 제1차 봉기 직전까지 장두청(고부봉기의 지도자들이 머무르며 지휘하던 장소)이 있었던 곳이다. 현재 복지회관이 서 있는 자리가 옛 장터로 알려지고 있다. 고부봉기 당시 전봉준 장군은 통문을 돌려 1월 9일 저녁 농민들을 이곳에 모이게 했다고 한다. 이곳에 모인 농민들은 대오를 정비하여 3km 떨어진 곳의 만석보를 허물고, 고부관아로 쳐들어갔다. 농민군의 집결 장소로 전해지는 곳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으나 2003년 여름, 수명을 다해 현재 말목장터에서 당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유적은 남아 있지 않다.



## 만석보 유지비(萬石湫 遺址碑)

정읍시 이평면 하송, 지방기념물 제33호

조선후기 수전농법이 보편화되면서 농민들은 수확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물이 흐르는 곳에 물막이 독인 보(湫)를 쌓고 이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다. 갑오년 당시 고부군수 조병갑은 정읍천과 태인천이 합류하는 동진강 상류에 농민들이 쌓아 사용하고 있던 민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을 동원하여 그 하류에 새로 보를 쌓고 과중한 수세를 징수하였다. 이에 전봉준, 김도삼, 정익서 등 고부 군민들은 1893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고부관아에 수세감면을 진정하였으나 강제로 쫓겨나고 말았다. 급기야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의 지휘 아래 1천 여명의 고부 농민들은 관아를 습격하고, 만석보를 부셔버렸다. 이것이 동학 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부농민봉기이다. 만석보는 고부농민봉기를 유발한 고부군수 조병갑 학정의 상징물이다.

## 유적지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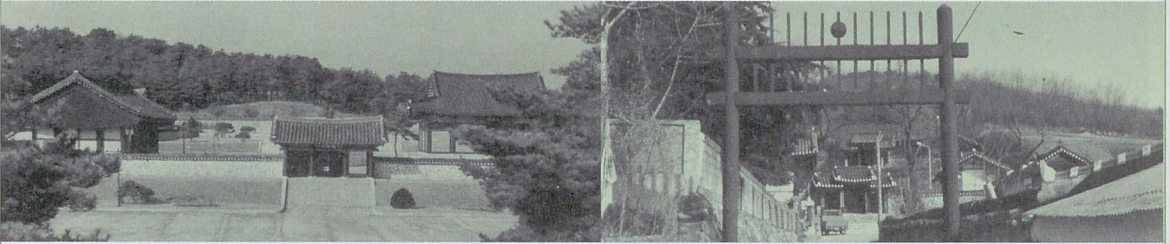
### 황토재 기념관·기념탑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이평면 도계리. 사적 제295호

계곡을 사이에 두고 두승산과 천태산으로 이어지는 황토재는 해발 35미터의 낮은 구릉지로서 진동 또는 사자봉이라고도 하는데, 1차 봉기 당시 백산에서 전열을 가다듬은 동학농민군이 1894년 4월 7일(음)에 전라 감영군과 보부상 부대로 이루어진 농민군 토벌부대를 만나 대승을 거둔 곳이다.

• 기념탑 : 황토재 정상에 세워져 있는 기념탑은 '동학혁명 기념탑 건립추진위원회'에 의해 1963년 10월에 세워졌다.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의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세워진 이 탑은 그 건립경위를 떠나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최초의 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 기념관 : 1960년대 이후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시작되면서 황토재 일대 유적지를 보존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후 전두환 정권 때인 1983년 황토재 전적지 일대에 대한 대대적인 기념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세워진 것이 황토재 기념관이다.



### 고부관아지(古阜官衙止), 고부향교(古阜鄉校), 군자정(君子亭)

정읍시 고부면 고부리

동학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고부농민봉기와 관련된 옛 고부군 유적들이다. 고부농민봉기는 1893년 11월의 사발통문 거사계획을 바탕으로 일어났으며, 고부라는 지역적 차원을 넘어 전면적인 봉기로 나아갈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고부관아지 : 조선말엽 고부는 전라도에서 전주 다음으로 컸던 고을이었다. 지금은 쇠락해서 하나의 면소재지로 변해 있다. 고부리 마을 북쪽 성황산 언덕에 고부성 흔적이 남아 있고, 당시 고부관아 자리 근처에는 고부초등학교가 들어서 있다.

• 고부향교 : 고부초등학교 옆에는 1403년 건립되어 갑오년 당시에도 있었던 향교가 남아 있어서 옛 자취를 가늠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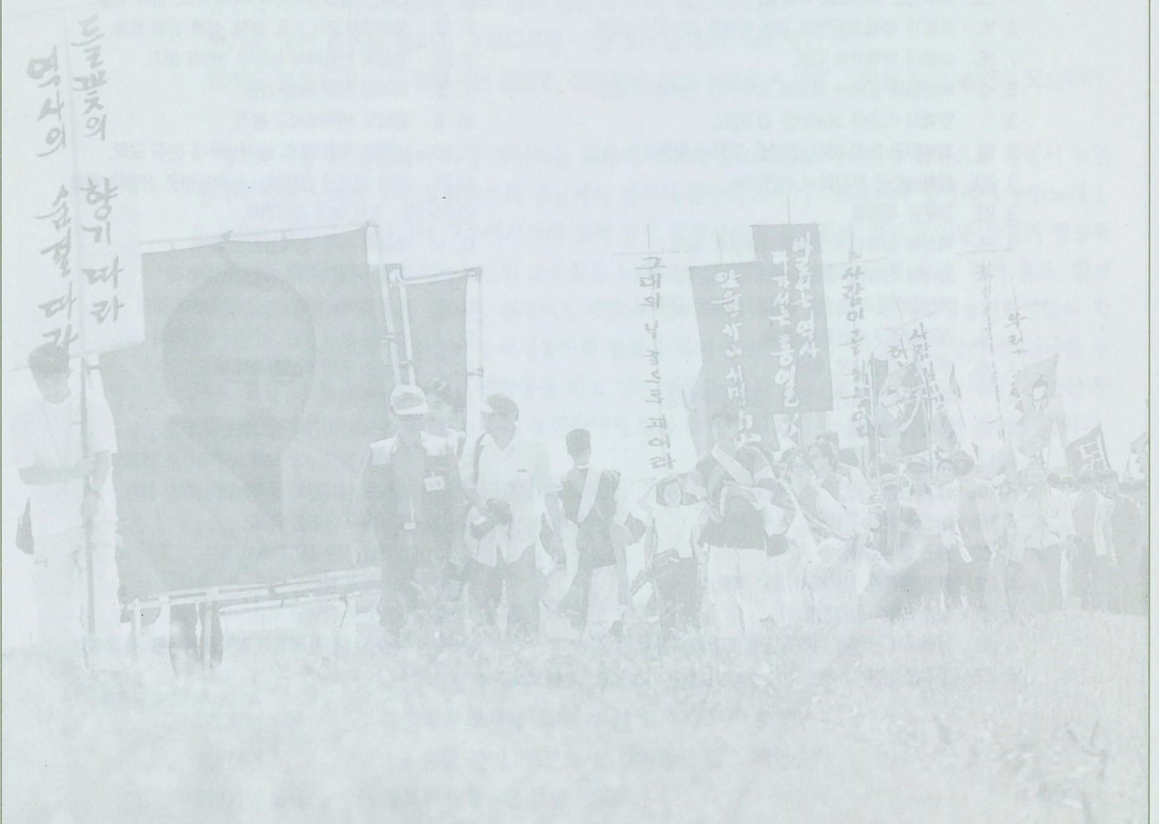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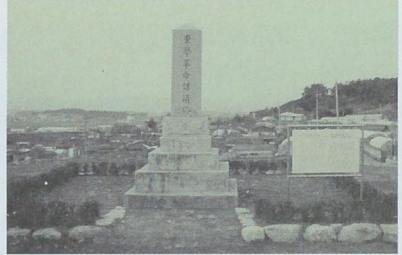
• 군자정 : 고부군수 조병갑이 기생들과 어울려 놀았다는 정자 군자정은 남북리에 자리하고 있다.

## 사발통문(沙鉢通文) 발견지와 동학혁명모의탑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1892(고종 29)년 4월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온갖 수탈과 학정을 자행하였고, 고부농민들은 수 차례 조병갑에게 진정서를 내고 호소하였으나 오히려 난민으로 몰려 내쫓기곤 했다. 1893년 11월 전봉준 등 20명은 고부군 서부면 죽산리(현 정읍군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송두호의 집에서 조병갑의 학정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조병갑 군수를 죽이고 전주감영을 함락시켜 서울로 올라가자는 혁명적인 모의를 결의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발통문(격문 또는 일반에게 호소문을 쓰고나서 그 주모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관계자의 이름을 원둘레를 따라 적은 통문)을 각 마을 집강들에게 보냈다.

이 사발통문은 1968년 12월 4일 사발통문 서명자의 한 사람인 송국섭의 아들 송기태가 사발통문 서명자의 한 사람인 송대화의 아들 송후섭의 집에서 여산 송씨 족보를 보다가 발견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사발통문이 발견된 이곳 신중리 주산마을 앞에는 1969년 4월 세운 '동학혁명모의탑'이 서 있다.



## 동학농민혁명 일지

1892. 10. 동학교도의 공주신원운동.  
 11. 1. 동학교도의 삼례신원운동.
1893. 2. 9. 동학교도의 광화문 복합상소.  
 2. 14. 동학교도의 서울 쾌서사건.  
 3. 10. 동학교도의 보은집회.  
 3. 4. 금구원평 집회.  
 4. 2. 보은집회 해산.  
 11. 15. 고부군민 조병갑에게 수세감면 요구.  
 11. 30. 조병갑 익산군수로 전임 발령.
1894. 1. 9. 조병갑 고부군수로 재부임.  
 1. 10. 고부농민봉기 고부관아 점령.  
 1. 25. 고부민군 백산으로 이동함.  
 2. 15. 조병갑 정죄, 김문현을 감봉, 박원명 고부군수 임명.  
 2. 16. 이용태 안핵사로 임명.  
 3. 3. 박원명의 설득과 회유로 고부군민 기본세력 해산.  
 3. 안핵사 이용태 고부민군 강경탄압.  
 3. 13. 고부민군 완전 해산, 전봉준 무장 순화중포로 피신.  
 3. 20. 동학농민군 무장에서 전면기포.  
 3. 23. 고부군 재점령.  
 3. 25. 백산에 집결하여 '호남창의대장소' 설치.  
 총대장 전봉준, 총관령 순화중 · 김개남 추대.  
 백산창의문과 농민군 4대 행동강령, 군율 등 선포.  
 4. 3. 전라감영군 백산으로 출동.  
 4. 6. 부안과 태인으로 후퇴.  
 4. 7. 황토현에서 감영군 격파. 정읍관아 점령.  
 4. 8. 흥덕, 고창점령.  
 4. 12. 농민군 영광 점령.  
 4. 15. 경군 원평 진출.  
 4. 16. 농민군 함평 점령.  
 4. 21. 경군 영광 도착.  
 4. 23.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경군 격파.  
 4. 25. 정읍, 태인, 원평진출.  
 4. 26. 원평에서 선전관 이주호, 군관 이효응, 배은환 등 참수.  
 4. 27. 전주성 입성.  
 4. 28. 경군 완산 포진, 동학농민군과 경군 접전.  
 5. 4. 조선정부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 아산만 상륙.  
 5. 6. 일본 군대 인천항 상륙.  
 5. 7. 전주화약 체결. 전라도 일대 집강소 설치.  
 6. 21. 일본군 경북궁 침입. 민씨정권 몰락.  
 6. 25. 친일 개화정권 수립, 군국기무처 설치.  
 7. 1. 청일전쟁 선전포고.  
 7. 2. 전봉준 남원 순회. 일본군 경북궁 침입소식 접함.  
 7. 15. 전봉준, 김개남 남원대회 개최.  
 8. 17. 청일전쟁에서 일본군 승리. 일본의 조선 내정 적극 간섭.  
 9. 초 전봉준 원평에서 2차 기포 숙고, 삼례 진출.  
 9. 12. 삼례에서 2차 기포 결정. 삼례 집결 통문.  
 9. 25. 경상도 안동에서 농민군 3천명 봉기.  
 9. 말. 최시형 휘하 복점 가담.  
 10. 6. 황해도 해주에서도 봉기.  
 10. 16. 남접과 북접 합류. 김개남부대 전주 도착.  
 10. 21. 목천 세성산 전투에서 동학농민군 선발대 패퇴.  
 10. 24-25. 효포, 대교 고평전투.  
 11. 9. 우금재 전투. 동학농민군 패배.  
 11. 25. 원평 구미란 전투. 태인으로 후퇴.  
 11. 27. 태인 전투. 동학농민군 주력부대 해산.  
 12. 1. 순화중 부대 해산. 김개남 태인에서 체포.  
 12. 2. 전봉준 순창 피노리에서 체포.  
 12. 3. 최경선 체포.  
 12. 5. 전라도 남해안의 동학농민군 장흥 점령.  
 12. 7. 전봉준 일본군에 의해 나주목으로 압송.  
 12. 10. 전라도 남해안의 동학농민군 강진 점령.  
 12. 11. 고창에서 순화중 체포.  
 12. 13. 김개남 전주 (장대)에서 효수.  
 12. 24. 최시형의 북접군 충주에서 해산.
1895. 1. 1. 원평에서 김덕명 체포.  
 3. 29. 전봉준, 순화중, 최경선, 김덕명, 성두환 등 교수형.

※위 일자는 모두 음력입니다.

## 문화마당

# 전북여성농민회연합 노래단 “청보리사랑”



▷단원 : 오은미 · 윤애경(순창), 박연희 · 도유희(정읍), 송지연(김제), 김혜선(고창) ▷명예단원 : 심영선 · 강명희 · 이경숙

### ■ 청보리사랑

농민의 소리, 여성의 소리, 자주 평화 통일의 소리 청보리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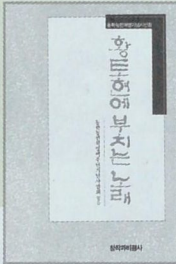
한겨울 모진 추위를 헤치고 푸르디푸른 싹을 틔우는 청보리를 보라.

밝혀도 밝혀도 또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청보리는 바로 자랑스런 우리 농민의 모습이다.

“청보리사랑”은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패이다. 전문노래꾼은 아니지만 농민으로 살면서 농민 정서에 맞는 노래로 농민 문화운동의 중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1994년에 창단하여 농민노래 1, 2, 3집을 내었고, 바다 건너 제주에서부터 철책 넘어 금강산까지 농민들이 있는 곳이면 삼천리 방방곡곡 어디든지 달려가서 농업·농민의 소중함을 노래로서 표현하며 농민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투쟁하며 10년의 세월을 살아온 전북여성농민노래단이다. 단원들 모두는 전북여성농민회연합의 각 시·군 여성농민회의 회원들이며 여성농민회 활동을 하며 농민, 노동자, 여성, 통일행사 등 전국을 무대로 연간 40여 차례 이상의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 아줌마 문화 선동대이다. 청보리사랑은 가열찬 투쟁의 현장에서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자 중단없는 전진을 계속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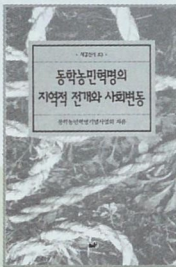
|          |   |
|----------|---|
| 1994년    | 전북여성농민회연합 노래단 청보리사랑 창단  |
| 1996년    | 청보리사랑 1집 음반 제작  |
| 1998년    | 청보리사랑 2집 음반 제작  |
| 2001년 7월 | 전북여성대회 - 여성운동상 수상<br>남북농민통일행사 축하공연 (금강산)<br>JTNT특집 다큐멘터리 “우리는 청보리사랑, 희망을 노래한다” 출연 |
| 2002년 9월 | 중앙방송 Q채널 “농부가 된 도시처녀들” 출연   |
| 2003년    | 3집 음반 준비 (설문조사, 창작활동 및 노래연습)  |
| 2004년 3월 | 청보리사랑 3집 음반 발표  |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간행물



## 『황토현에 부치는 노래』 창작과비평사(1993. 10. 정가4,000원)

동학농민혁명을 주제로 쓰여진 시 89편을 한데 모은 시선집(詩選集)이다. 이 시선집은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맞아 그 기념으로 기획·편집 간행된 책이다. 68명의 시인들이 형상화한 다양한 시들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어떤 모습으로 뿌리내려 있는가를 확인해볼 수 있는 뜻깊은 책이다.



## 『황토재에서 우금재까지』 도서출판 동남풍(1994. 4. 정가10,000원)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한 해 앞두고 기념사업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유적지를 대중적으로 알려나가기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다고 판단, 답사 안내서 실행위원회 활동을 통해 1994년 백주년을 맞아 이 책을 간행했다. 이 책은 동학농민혁명 의의를 다룬 총론과 함께 전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글, 동학농민혁명 관련 논저목록 등이 실려 있으며, 관련유적지(전북지역)를 찬찬히 소개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새야새야 파랑새야』 도서출판 발언(1994. 3. 정가14,000원)

1994년 4월 기념사업회에서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마련했던 미술 전시회 '새야새야 파랑새야'에 출품되었던 120여명의 중견화가 작품들 한데 모은 칼라 판 도록(圖錄)이다.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갑오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감상할 수 있다.

## 『동학관련판결문집』 총무처 정부기록보존소(1994. 3. 정가15,000원)

1895년 3월부터 1910년 이전까지의 재판기록을 조사·선별하여 수록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재판기록문집인 이 책은 기념사업회와 정부기록보존소가 역사학계 관련 연구자들을 위해 200부(한정)를 간행하였다.

## 『동학농민혁명과 사회변동』 한울출판사(1993. 12. 정가8,500원)

동학농민혁명 백주년을 한 해 앞두고 기념사업회와 전주MBC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때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수록한 책이다. 이 책에 실려 있는 논문들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시대상황과 혁명 이후 사회변동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 『동학농민혁명의 지역적 전개와 사회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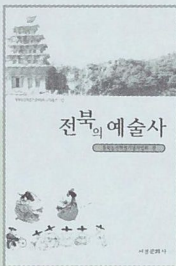
새길출판사(1995. 4. 정가10,000원)

1994년 6월 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 학술대회> 때 발표된 논문과 토론내용을 수록한 책이다. 각 지역별 동학농민혁명 전개양상을 연구한 논문들이 실려있는 이 책을 통해 전국적이면서 전민족적인 항쟁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의 참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 백서』 신아출판사(1995. 12. 정가2,000원)**

1994년 전국 각지에서 펼쳐졌던 동학농민혁명 백주년 기념사업을 한데 모은 자료집이다. 이 책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 백주년 기념사업을 각 지역 기념사업 단체별로 분류·기록하고 있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단체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집이다.



**『동학농민혁명과 농민군 지도부의 성격』**

서경문화사(1997. 12. 정가9,000원)

1996년 10월 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때 발표된 논문과 토론 내용을 수록한 책이다. 이 책은 동학농민혁명의 지도부의 성격 규명과 농민혁명 지도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논문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1998. 10. 정가8,000원)**

기념사업회에서 199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사 및 전북의 역사』(전6권)의 제1권이다. 일반인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보다 가깝게 접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 부피에도 신경을 썼으며, 그 내용에서도 학술적인 용어는 애써 멀리한 대중적인 동학농민혁명사이다.

**『전북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1998. 8. 정가12,000원)**

기념사업회에서 199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사 및 전북의 역사』(전6권)의 제2권이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전북의 역사를 잘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기념사업회 학술분과의 의지가 담긴 책이다.

**『전북의 예술사』 서경문화사(2000. 1. 정가14,000원)**

기념사업회에서 1998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사 및 전북의 역사』(전6권)의 제3권이다. 일반인들이 전북의 다양한 예술분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장르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전체적인 전북의 예술사를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다.

**『동학농민혁명의 동아시아사적 의미』**

서경문화사(2002. 5. 정가29,000원)

2001년 6월 열렸던 동학농민혁명 국제학술대회 때 발표된 논문과 토론 내용을 묶은 책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규명하고 그 21세기적 계승전략을 모색하며 동학농민군 진압 때부터 시작된 일본제국주의의 피침략지 민중과 소수 민족에 대한 인권 유린과 학살실태 등의 연구논문을 담고 있다.

# 전국고등학생 백일장

- 일시 : 2004. 5. 29.(토) 오전 9시 - 오후 5시
- 장소 : 전북대학교
- 주최 : 전북대학교,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 ■대회요강

- 대상 전국 고등학교 재학생
- 내용 올바른 역사인식과 나라사랑 (주제는 당일 발표)
- 참가부문 운문(시), 산문
- 신청접수기간 2004년 5월 13(목)~22일(토)
- 접수 대회신청서 양식별도, 우편·팩스·이메일 접수가능 063)232-1894
- 참가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학교당 30명 이내만 신청이 가능
- 심사방법 대회 당일 심사위원들의 예심과 본심을 거쳐 수상작 발표
- 시상내역 <학생>

| 등 위 | 인 원           | 상 장   | 내 용              |
|-----|---------------|-------|------------------|
| 대 상 | 2명(각 부문 1명)   | 동학농민상 | 상장 및 상품 500,000원 |
| 우수상 | 4명(각 부문 2명)   | 녹두장군상 | 상장 및 상품 300,000원 |
| 가 작 | 10명(각 부문 5명)  | 보국안민상 | 상장 및 상품 100,000원 |
| 장 려 | 20명(각 부문 10명) | 파랑새상  | 상장 및 상품 50,000원  |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등위별 수상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지도교사상) 동학농민상(전라북도 교육감상) - 20명 이상 참가하여 가장 많은 입상자를 낸 학교의 지도교사

## 특전

- 대상 및 우수상 수상자
- 전북대학교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문학특기자) 분야에 지원할 수 있음.
- 전북대학교 입학할 경우 대상수상자는 2종 장학금, 우수상 수상자는 3종 장학금을 1년간 지급함.

## 대회일정

- 09:00~10:00 접수 및 기념식
- 10:00~13:00 원고작성 및 지도교사 간담회
- 13:00~14:00 점심(주최측 제공)
- 14:00~16:00 특별프로그램(강연, 영상물 상영 등)
- 16:00~17:00 시상



# 달리자 희망 함께만들자 역사



일시 | 2004년 5월 23일(일) 오전 7시  
장소 | 전주종합경기장

동학농민혁명 110주년 기념

## 제2회 전주동학마라톤대회

• 경기종목 | 하프코스(21.0975km), 건강코스(5km)

• 대회코스

하프코스 | 전주종합경기장(출발) → 삼천변 → 국립전주박물관 → 금구방향 전환점 → 삼천변 → 전주종합경기장(골인)  
건강코스 | 전주종합경기장(출발) → 백제교 → 가린교 → 전주종합경기장(골인)

• 참가비 | 하프코스(20,000원), 건강코스(10,000원) ※참가자 전원에게 간식, 배번호, 완주메달, 안내책자, 기념티셔츠 제공

• 시상 | ■하프코스 : 1위~10위 트로피 및 부상 (남·여 각각) ■건강코스 : 1위~6위 트로피 및 부상 (남·여 각각)  
■특별상 : 최고령자, 최연소자 트로피 ■단체상 : 20명 이상 참가팀 트로피 및 기념품

• 참가신청 | 접수기간 : 2004년 3월 10일(수) ~ 4월 27일(화) ■신청문의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화 063-231-1894)

※세부 대회요강 및 참가신청은 홈페이지 참조

동학마라톤 [www.dhmaro.or.kr](http://www.dhmaro.or.kr) / 한글도메인 "동학마라톤"(주소창에 한글로 "동학마라톤" 기입) / 전주시 [www.jeonju.go.kr](http://www.jeonju.go.kr) / 사업회 [www.donghak.ne.kr](http://www.donghak.ne.kr)

■주최 |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주시 ■주관 |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전주시육상연합회

■후원 | 전라북도, 전북지방경찰청, KBS전주방송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전북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 다시 피는 복두꽃 고향사의 희망



## 행사내용

### • 기념식

시간 : 10시 ~ 10시 30분  
장소 : 백산성 (부안군 백산면 백산봉기 터)

### • 범도민 걷기대회 (품물: 훈소리풍물패)

시간 : 10시 30분 ~ 11시 30분  
장소 : 백산성 → 전봉준장군 고택

### • 전직지 답사

시간 : 11시 30분 ~ 13시  
장소 : 전봉준장군 고택 → 말목장터 → 만석보 유지비 → 황토재 전직지

### • 점심식사 (13시 ~ 14시 / 황토재 기념관)

### • 학생 글쓰기·그림대회 (대상: 초·중·고 학생)

시간 : 14시 ~ 16시  
장소 : 황토재 기념관

### • 전직지 답사 (참여: 일반참가자)

시간 : 14시~16시  
장소 : 고부관아지, 군자정, 고부향교 → 시발통문발견지, 동학혁명모의탑

### • 문화마당 - 노래공연 (출연: 청보리사랑)

시간 : 16시 ~ 17시  
장소 : 황토재 기념관

동학농민혁명 백산봉기 110주년 기념대회는 교차로에서 협찬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www.donghak.ne.kr](http://www.donghak.ne.kr)

전화 063. 232-1894 / 팩스 232-1895

560-020 전북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1가 106번지(기업은행 4층)



본 자료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소장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으로 구축한 것입니다.